

일교차 큰 봄, 가축도 관리가 필요해요



농 춘진홍청(청장 정황근)은 봄철 큰 일교차가 가축의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, 닭 관리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.

봄에는 닭의 활동이 활발해진다. 사료의 질과 양을 조절해 지방계¹⁾의 발생을 예방하고, 길어지는 일조시간에 맞춰 점등 관리를 철저히 해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. 어린 병아리는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져 처음 1주 동안은 31~33℃ 정도를 유지하다가 1주일 간격으로 약 3℃씩 온도를 내려주고 20℃ 전·후가 되면 가온²⁾을 중단한다. 계사(닭장) 내의 습도는 병아리 기르기 초기에는 70%, 2주령에는 65%, 3주령 이후에는 60% 정도가 적당하다. 실내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주 정도는 바닥에 물을 뿌려주거나 가습기를 사용한다. 환기가 안 되면 콕시듐증³⁾, 장염, 호흡기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발육이 늦어지며 사료효율이 나빠지고 폐사율이 높아지므로 일령, 기후 등 고려해 환기를 실시한다.

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이병철 농촌지도사는 “봄은 가축에게 추위에서 벗어나는 시기이자 대사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세심한 정성과 합리적인 관리는 가축들을 더욱 건강하게 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.”라고 강조했다. **양계**

- 1) 닭에 체지방이 축적된 지방이 많이 낀 닭
- 2) 닭장 내 온도를 올려주는 것
- 3) 닭에서 설사와 장염, 혈변을 특징으로 하는 원충에 의한 기생충성 질병